

독일어로 철학하기
: 『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』 원서 강독

제1강

Von den drei Verwandlungen 1

강사: 이동용

1강

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들

제목: Also sprach Zarathustra (동사원형 = sprechen)

부제목: Ein Buch für Alle und Keinen (모두를 위한 ↔ 아무도 위하지 않는)

- ① **Nihilismus** 니힐리즘, 니힐리즘, 허무주의 → 무(無)
= “신은 죽었다”-신앙 **Gott-ist-tot-Theologie** 혹은 **Theothanatologie**
(gr. theos(Gott)와 thanatos(Tod), 즉 신의 죽음을 논하는 이론, 즐거운 학문, 125번)
- ② **Lebensphilosophie** 생철학 → 삶/인생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음!
“니체의 철학 전체는 삶을 유지하려는 시도이다
Nietzsches ganze Philosophie ist der Versuch,
sich am Leben zu halten.”¹⁾)
- ③ **Übermensch** 초인 → 위버멘쉬, 넘어선, 넘어서는, 넘어서고 있는 인간!, 극복의 철학
- ④ **Zarathustra** 차라투스트라 → 초인의 이름!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!
선과 악의 힘을 모두 요구하는 원리!
선과 악이 서로 끝까지 싸운다!
- ⑤ **Umwertung aller Werte** 모든 가치의 가치전도→ 가치의 문제, 가치관의 문제
- ⑥ **Ewige Wiederkunft** 혹은 **Ewige Wiederkehr** 영원회귀
→ 귀환, 끊임없이 떠나고 또 돌아온다! 회자정리 거자필반!
《차라투스트라》 제3부 <건강을 되찾고 있는 자>
- ⑦ **Wille zum Leben** 삶의 의지, 생의지 → 더욱 강화 시켜야 할 의지!
- ⑧ **Wille zur Macht** 권력에의 의지, 힘에의 의지 → 주인의식, 주인도덕
- ⑨ **Metaphysik** 형이상학을 포기 하지 않는다! → 모가지는 자를 수 없다!
- ⑩ **Moralphilosophie** 도덕철학, 도덕_{Moral}을 위해 도덕과 싸운다!
→ 도덕이 없을 수는 없다!
- ⑪ **Wahnsinn** 광기, 광기의 철학! = 창조를 위한 광기!
→ 미쳐야 사랑이야! 이성적 존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

1) Rüdiger Safranski: 《Nietzsche. Biographie seines Denkens》, Frankfurt am Main 5/2010, 9 쪽.

- ⑫ **Abgrund** 심연, 심연의 철학! → 심연을 사랑하는 철학!
= 심연을 존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철학! = 심연이 무대가 될 때까지!
- ⑬ **Wanderer** 방랑자의 철학 = 얽매임이 없는 형식 = 자유로운 형식
→ 〈방랑자와 그의 그림자Der Wanderer und sein Schatten〉(인간II, 제2장 첫 부분과 끝부분)
자기 자신과의 대화 = 고독의 철학 + 독백의 철학
- ⑭ **Sonne** 태양의 철학 → 태양처럼 몰락한다!
빛이 없는 곳에 빛을 주러간다!
- ⑮ **Stern** 별의 철학 → “춤추는 별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 우리는 혼돈을 품어야 한다.”
(차라, 24쪽)
- ⑯ **Unter der Erde** → **unterirdisch** 지하의 철학 + 동굴 철학
→ Trophonios = Maulwurf 《아침놀》 + ‘차라투스트라의 동굴’
→ 비교, 효수의 이념
- ⑰ **Inspiration** 영감의 철학 → 자기 안에 미신의 찌꺼기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지 않은 자
lat. inspiratio = Beseelung, Einhauchen,
spirare = hauchen, atmen
- ⑱ **Fluch** 저주의 철학 → 《안티크리스트》의 부제목 〈기독교에 대한 저주〉
Der Antichrist – Fluch auf das Christentum. 1895
저주의 심리학!
《안티크리스트》를 마감하는 글
= Gesetz wider das Christentum 기독교 반대법
누가 저주를 말할까? 자신의 때가 아닌 자가 저주를 말한다!
비교, 《신을 탄핵한 철학자 니체와 〈안티크리스트〉》(2022)

《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》 ‘Zarathustras Vorrede 차라투스트라의 머리말’ 내용 요약

- ① 태양처럼 몰락하라 → 차라투스트라의 동굴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
- ② ‘신은 죽었다’라는 복음 소식 → 산속에 사는 노인과의 대화
- ③ 시장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강의 = 초인은 대지의 뜻이다
- ④ 몰락의 의미 = 먹구름이 비를 내린다! → 먹구름이 모여야 번개가 친다!
- ⑤ 최후의 인간 = Der letzte Mensch 마지막 인간
- ⑥ 줄타기 공연 → 추락 사고 → 영혼이 먼저 죽는다; 위로의 말
- ⑦ 존재의 의미 → 삶의 의미, 아직 멀리 있다! = 머리말에서 가장 짧은 장!
- ⑧ 무덤 옆에서 하는 생각들 → 배고픔의 의미 → 먹어야 정신을 차린다, 산 자는 살아야!
- ⑨ 새롭게 눈을 뜨다 →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다 → 가치의 첩판이 깨고 새롭게 만든다

⑩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의 시작을 선포하다 → 비극의 시작을 알리다

Die Reden Zarathustras

Von den drei Verwandlungen

1 Drei Verwandlungen nenne ich euch des Geistes: wie der Geist zum Kamele wird, und zum Löwen das Kamel, und zum Kinde zuletzt der Löwe.

2 Vieles Schwere gibt es dem Geiste, dem starken, tragsamen Geiste, dem Ehrfurcht innewohnt: nach dem Schweren und Schwersten verlangt seine Stärke.

3 Was ist schwer? so fragt der tragsame Geist, so kniet er nieder, dem Kamele gleich, und will gut beladen sein.

4 Was ist das Schwerste, ihr Helden? so fragt der tragsame Geist, daß ich es auf mich nehme und meiner Stärke froh werde.

5 Ist es nicht das: sich erniedrigen, um seinem Hochmut wehe zu tun? Seine Torheit leuchten lassen, um seiner Weisheit zu spotten?

6 Oder ist es das: von unserer Sache scheiden, wenn sie ihren Sieg feiert? Auf hohe Berge steigen, um den Versucher zu versuchen?

7 Oder ist es das: sich von Eicheln und Gras der Erkenntnis nähren und um der Wahrheit willen an der Seele Hunger leiden?